

##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대인칭기

## 미국·캐나다선 불법체류자 자녀도 의무교육

### LA·밴쿠버=이종행기자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각기 다른 민족들의 다양성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사회단체나 다문화 관련 관계자들이 꼽는 다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광주일보의 현지 취재 결과 이들 ‘다문화 선진지’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해 전 국가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언어 마틴(여·46·한국명 김연아)씨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다양한 이민 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도 다문화사회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 정책을 사회복지의 주요 부분으로 삼고, 이주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들 나라는 해외 이주민이나 다문화 2세들은 물론, 불법체류자 자녀까지 의무교육을 시킬 만큼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교육과 지원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구성원들을 상대로 언어는 물론, 각국의 문화와 풍습 등에 대해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가족 단위로 문자 및 언어 해독을 지원하는 ‘가족문해’(Family literacy)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민족의 ‘공존공생’을 꾀하고 있다.

미국 LA ‘찰스 김 초등학교’의 캐리 켈리(Kerry R. Kehrlay) 교장은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자국 문화에 융화시키는 이른바 ‘용광로’ 주의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문화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역시 다양한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과 이민자 호스트(HOS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두 나라가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에 나선 것은 다양한 인종 분포에 따른 여러 사회적인 부작용

외에도 다문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극심한 갈등과 분쟁을 겪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미온적인 다문화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주 외국인이 118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광주·전남은 올해 다문화 2세들의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 등 지원 시스템 확충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일보는 선진국들의 다문화 정책 및 변화 과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다문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3개국에 대한 취재 결과를 총 6회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캐나다 밴쿠버의 ‘잉글리쉬 베이’(english bay) 앞 공원에 있는 ‘행복의 군상’이라는 동상 앞에서 주민들이 작품의 포즈를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다민족들이 캐나다에 모여 행복의 미소를 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밴쿠버=이종행기자 golee@



맛있는 김치 나눔 광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공동 주최로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동림동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린 ‘2010 맛있는 김치, 맛있는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광주고등검찰청, 대한생명 호남지역본부, 광주신세계백화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남화토건주식회사 직원 등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김치를 담고 있다. 이날 담긴 김장김치는 광주지역 소외계층 600여세대에 전달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확전 방지’서 ‘응징’으로... 교전규칙 바꾼다

### 이대통령 “서해5도 최고의 장비 갖춰라”...김태영 국방 사의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군 전력에 대폭 증강된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전 규칙이 전면 개정되고 민간 공격에는 대응 수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관련기사 3·4·5·7면>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창식 국무총리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

검토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체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을 교정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장비를 갖춰 철

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체점이 드러난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흉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열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

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북도서 지역 전력증강과 관련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2636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한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에 따르면 군은 우선 북한의 해안포 포격에 대응사격

에 나섰던 K-9 자주포를 00문 배치할 수 있는 예산 약 820억원을 요청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정밀타격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560억원도 요청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기로 했다”면서 “최근 연속된 군 사고와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의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분위기를 일신 위해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 光銀 입찰 오늘 마감

### 광주상의·전북銀·우리금융 등 5파전 예고

광주은행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둔 25일 광주상공회의소와 우리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 등이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인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전은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를 주축으로 한 지역 자본과 전북은행, 대구은행,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 중국 공상은행 등 5파전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광주상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6일 오전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 명의의 매각주관사인 대우증권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출자자협의회는 광주 D운수 등 지역 기업 대표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은행도 광주·전남지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광주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당초 이날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하루 늦춰 26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도 우리금융 산하 고객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광주은행·경남은행을 모두 인수해 ‘지방공동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며,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도 최근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광주은행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은행 인수전은 5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박정욱·이민기 기자 jwpark@

## ‘상생법’ 통과...SSM 규제 길 열렸다

###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관련기사 9면>

아울러 상생법 처리 지연으로 사업조정 계류중인 광주 북구 동림동, 광산구 우산동 등 광주지역 4곳의 SSM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 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삼아왔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생법은 여야간 입

장차로 7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이날 법안 제안실명을 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본회의 직후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조정 계류 중인 광주 북구 동림동, 광산구 우산동 등 4곳을 포함해 전국 10곳의 SSM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내년 출범 광주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노성대씨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는 광주문화재단 초대 대표 이사 노성대(70·사진) 전 MBC 사장이 내정됐다. <관련기사 12면>

광주시는 25일 “민 소통과 창의적 문화 마인드를 갖춘 리더십을 고려, 노성대 전 사장을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내정 사유를 밝혔다.

노 내정자는 강은래 광주시장이 직접 영입에 나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신인 노 내정자는 MBC 대표이사 사장과 방송위원회 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을 거쳐 최근까지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시는 또 재단 사무처장에 박선정(52) 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단장을 임명했다. /김미은기자 mekim@

本社人事  
▲林水澤 서울지사장 직무대리 (11월26일자)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17개교 원서접수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kgcr.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11.04~12.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330-7323-5

세계를 뒤흔든 바로 그 뮤지컬!  
전세계 3천만 관객의 돌풍! 문화수도 광주에 상륙!  
뮤지컬 맘마미아!  
BENNY ANDERSSON & BJÖRN ULVAEUS'  
MAMMA MIA!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2010년 12월 3일(금)~5일(일) 총5회 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광주일보 | KBC | KCTV 광주방송 | 주관 | 공연마루  
공연문의 : 062-220-0541, 1588-0766 | 인터넷예매 : 티켓마루(www.ticketmaru.co.kr), 인터파크